

책의 도시 전주 도서관 여행 '각광'

기관프로그램·영향력자와 함께하는 도서관여행 등에 기관·단체 참여 잇따라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전주 도서관 여행이 관광 효자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전주의 다양한 책놀이터와 특화도서관을 둘러보는 전주 도서관여행에 일반시민과 타 지역 기관·단체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전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프로그램인 전주 도서관 여행은 매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 여행과 평일 운영되는 기관프로그램, 영향력자(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도서관여행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관프로그램에는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전주시교육지원청 소속 교장과 교감, 공립유치원 원감 △전주대학교 학생 △전주시교육지원청 소속 사립유치원장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등 20개 기관에서 400여 명이 참여했다. 전주시교육지원청 소속 공립유치원 교사 200명도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전주 도서관 여행을 즐기고 있다.

특히 전주 도서관여행이 널리 알려지면서 지난 6월부터는 안성시 아양 도서관 관계자와 경상북도 교육지원청 관계자, 전국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제심포지엄 참석자 등 타 지역 기관·단체들의 방문도 늘고 있다.

시는 이날 아반도주립의 김멋지·위선임 작가를 초청해 '영향력자(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책 여행'을 일반 시민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아반도주립의 김멋지·위선임 작가는 2년간의 세계여행 경험을 담은 여행 영상을 제작하고 여행의 이야기를 모은 '서른, 결혼하신 아반도주'를 출간한 유명 여행작가들로, jbc '트래블러 1·2'의 방송 작가 활동 및 다수의 팟캐스트 출연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나오고 있다.



전주시는 6일 아반도주립의 김멋지·위선임 작가를 초청해 '영향력자(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책 여행'을 일반시민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영향력자(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이번 전주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에서 참여한 시민들은 아반도주립과 함께 △전주 구시가지의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금암도서관 △여행자들의 시작을 함께하는 전주역 첫마중길여행자 도서관 △전주의 맛과 한여름의 푸르름을 담은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을 차례로 방문했다. 마지막 장소인 연화정도서관에서는 '여행보다 더 여행' 같은 여행 이후의 삶'을 주제로 세계 여행 이후의 변화된 삶 등 다양한 이

아기가 담긴 강연도 펼쳐졌다. 이밖에도 매주 토요일 '구석구석 하투코스 도서관 여행'과 '취업취업 반일코스' 등 친구·가족·지인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아반도주립과 함께한 전주 도서관 여행의 스케치 영상은 전주 도서관 여행 인스타그램과 전주 독서대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영향력자와 함께하는 책 여행은 △양태오 디자이너(8월 11일) △유지혜 작

가(8월 30일) △황인찬 작가(9월 2일)와 함께 계속될 예정이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책의 도시 전주의 도서관은 시민들의 삶터이자 미래세대가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놀이터, 꼭 한 번 보고 싶은 여행목적지로 점차 변신하고 있다"면서 "도서관여행을 통해 전주만의 도서관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전주의 대변력을 이룰 미래 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우주로 1216”서 다양한 여름 특별 프로그램 즐겨요

전주시립도서관, 8월 말까지 여러 전문가들과 운영

전국 최초의 트윈세대(12~16세) 전용공간인 전주시립도서관 꽃실 '우주로 1216'에서 인생사진 찍는 법 배우 보기와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전주시립도서관은 다음 달 말까지 △그림책 인형작가 △펜드로잉 작가 △지역 사진작가 △독립출판 대표 등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트윈세대를 대상으로 한 '우주로 1216' 여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9일에는 공현선 그림책 인형작가(작가명 니나모나)와 함께 '내 친구 스누피'라는 책을 함께 읽고 애니메이션 주인공인 '스누피' 인형을 만들어 전시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30일에는 남서연 작가(작가명 바렌)와 함께 '내가 좋아하는 우주로 구석구석 그리기'를 주제로 우주로 1216의 공간을 각자의 취향에 맞게 그려보는 기회가 제공된다.

다음 달 2일에는 최요셉 사진작가와 함께 우주로 1216와 연화정도서관을 여행하며 인생사진 찍는 법을 배우보는 프로그램이, 다음 달 28일에는 독립출판사 쪽프레스의 김태웅 대표, 김미래 편집장과 함께 '내 인생 첫 순간

을 담은 한쪽 책 만들기'를 주제로 나만의 특별한 책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각각 운영된다.

다음 달 13일에는 우주로 1216 이용자가 직접 강사가 돼 다른 트윈세대에게 다양한 창작활동을 가르쳐주는 이용자 주도 프로그램인 '우주로 아벤져스(우벤져스) 작업 워크숍'이 열린다. 이 워크숍에서는 다키움 '21작가'(초등학교 5학년)가 만화 그리는 방법을 전수해주며 프로그램을 이끌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주로 1216에서는 '반려동물: 강아지 이야기' 컬렉션을 통해 강아지를 주제로 한 도서들을 살펴볼 수 있으며, '우주인이 만난 지구인 예술가'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두 번째 그림일기'를 주제로 한 이치현 작가의 작품과 굿즈도 만나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상시로 운영되는 3D펜, 뜨개질, 드로잉, 슈링클스, 메이킹스페이스 등 우주로 1216만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여름방학 동안에는 재 활용 상자를 이용한 노트 만들기도 운영될 예정이다.

우주로 1216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



전국 최초의 트윈세대(12~16세) 전용공간인 전주시립도서관 꽃실 '우주로 1216'에서 인생사진 찍는 법 배우보기와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063-230-1814)으로 문의하거나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을 참고하면 된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우주로 1216은 주말에 약 100

여 명의 아이들이 오고 갈 정도로 트윈세대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개관 이후 5500여 명이 견학 및 벤치마킹을 다녀갈 만큼 전국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트윈세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김동현 의원 정성길 의원 이남숙 의원 송영진 의원 박선전 의원

전주시의회 상임위원장 선출

운영 김동현·행정 정성길·복지환경 이남숙 문화경제 송영진·도시건설 박선전 위원장

전주시의회가 6일 제35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각 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장 김동현 의원(삼천1·2·3, 효자1동), 행정위원장 정성길 의원(서신동), 복지환경위원장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문화경제위원장 송영진 의원(조촌, 여의, 혁신동), 도시건설위원장 박선전 의원(진북, 인후1·2, 금암1·2동)

이다. 선출된 위원장들은 "시민과 함께 하며 그 생각을 실현하는 전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지막으로 원 구성을 마친 제12대 전반기 전주시의회는 2024년 6월까지 2년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김윤상 기자

전주 인문자원, 디지털 콘텐츠로 재탄생

시, 문체부 '디지털 지역 인문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선정

전주팔경의 하나인 기린토월(麒麟吐月) 등 전주시 노송동의 유·무형 자산과 전주시민들의 생활사가 담긴 디지털 콘텐츠가 개발된다.

전주시와 문화통신사협동조합, 원광대학교 지역인문학센터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디지털 지역 인문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돼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인문자원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창의적인 방식으로 인문 지식과 가치를 확산하는 인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주시를 비롯한 3개 참여기관은 '3D 게임형 콘텐츠 구축을 통한 전주 인문도심 인문학자원 발굴 및 연구'를 주제로 디지털 인문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남노송동 마을의 유·무형 인문 자산과 시민의 생활사(기억, 공

간, 문화)를 구체화하는 논문 1편을 작성하고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나서게 된다.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남노송동을 상징하는 기린토월의 수호신 기린과 토끼 캐릭터를 제작하는 동시에 3D 인터페이스 모델링을 통해 남노송동과 연계하는 마을을 발굴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시와 문화통신사협동조합, 원광대 지역인문학센터는 지난달 7일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권인숙 전주시 인문생애교육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전주지역 청년예술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마을 인문자원을 발굴하게 된다"면서 "디지털과 인문학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인문학의 확장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수혈 적정성평가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차 평가서 모든 항목 우수한 평가 받아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제1차 수혈 적정성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수혈 적정성평가는 수혈 영역의 의료질 개선과 환자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이번 평가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전국 515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수혈 체크리스트 보유 유무 △비에기형체선별검사(Irregular Antibody) 실시 △수혈 전 혈액검사에 따른 수혈률 △수술 환자 수혈률 △수혈관리 수행률 △수술 전 빈혈 교

정률 △한 단위(1 Unit) 수혈률 △수혈량 지표 등 총 8개 지표로 시행됐다. 평가결과 전북대병원은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종합점수 100점으로 종합점수 전체평균(69.3점)을 훨씬 상회하며 1등급을 획득했다.

유희철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모든 의료진들이 체계적인 혈액 관리와 안전한 수혈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번 최우수등급 평가결과는 혈액의 적정 사용과 수혈 환자의 안전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혈 영역의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의료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외국인 주민 대상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

전주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완주·군산·정읍 경찰서와 협력 진행

전주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센터장 이지훈)는 다음 달 21일까지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난민, 기타체류자 등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외국인 주민의 범죄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범죄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이번 교육은 완주경찰서·군산경찰서·정읍경찰서와 협력해 진행된다. 교육에는 각 회기당 30여 명의 외국인 주민들이 참여하며, 지난 3일 완주군가족센터에서 진행된 첫 교육을 시

작으로 다음 달 7일은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 달 21일은 정읍시가족센터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직장생활과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상담도 실시된다.

이지훈 전주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범죄 대처가 미흡한 외국인주민들의 범죄 대처 능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센터는 앞으로도 인권보호 강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어진박물관서 조선왕실문화 체험

19일~8월 4일 '왕실문화 집중탐구' 프로그램 운영

조선왕조의 분향인 전주에서 왕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전주시 어진박물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왕실문화 집중탐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왕실문화 집중탐구는 왕실의 다양한 문화를 주제로 '인문강좌'와 '체험클래스' 등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왕실문화 인문강좌는 △왕과 신하들이 함께 유학을 논하는 '경연' △왕실 공식행사인 '의례'와 그 속의

'음악' △왕실 미술의 정점인 어진을 중심으로 한 '미술문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왕실문화 체험클래스는 △궁궐 잔치 속 잔치상을 꾸민 한지로 만든 꽃 '상화' △왕의 도장 어보와 기타 기품들을 멋스럽게 포장하던 방식인 '궁중포장' △궁궐에서 활용하던 병풍이나 기타 장식들에 들어간 그림인 '궁중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왕실문화 집중탐구 프로그램은 각

각 3회씩 총 6회에 걸쳐 운영되며, 왕실궁예 등 일부 체험프로그램은 유료로 진행된다.

왕실문화 인문강좌는 전주시사박물관 강당에서 현장접수를 받으며 매주 화요일에 운영되고, 왕실문화 클래스는 네이버 예약, 전화로 사전 예약을 받으며 매주 목요일에 운영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어진박물관 누리집(eojinmuseum.org) 또는 전화(063-231-0190)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